

AI 활용 사례 공모전

AI로 공식 공고와 지원서 요구사항을 한 화면에서 점검하는 HR 실무 활용사례

신청자 정보

성명: 박원혁

참가 분야: 업무 생산성 개선

활용 도구: ChatGPT, Codex, 문서 편집·텍스트 추출 도구

사례 제목

AI로 공식 공고와 지원서 요구사항을 한 화면에서 점검하는 HR 실무 활용사례

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공공기관 대외활동과 공모전에 지원할 때 공고문, 공식 신청 페이지, 첨부 양식, 개인정보 동의서가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있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마감시간, 제출 파일 형식, 글자 수, 서명 여부를 놓치면 작성이 끝난 뒤에도 다시 처음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준비 과정에서 AI를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공식 자료를 읽고 확인해야 할 항목을 분리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hatGPT와 Codex를 이용해 먼저 공식 공고에서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동의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공식 신청서의 표와 항목 순서를 기준으로 답변 초안을 배치하고, 각 문장에 실제 경험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표시했습니다. HR 업무에서 제도와 절차를 운영할 때 사용하던 문제-행동-결과 방식으로 경험을 정리하되, 확인되지 않은 성과나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AI가 만든 문장은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공고 원문과 양식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공고 요약, 자기소개 답변, 개인정보 동의, 파일 제출을 하나의 작업으로 섞지 않고 단계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문서는 임시저장 상태로 남기고, 실제 접수 후에는 접수 화면이나 번호를 확인해야 완료로 기록하는 기준도 세웠습니다. 특히 문서에 주소나 연락처처럼 꼭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마지막에 별도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임의의 시간 절감이나 선발 가능성으로 부풀리지 않고, 실제 확인 가능한 작업 흐름과 누락 방지 기준을 남긴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AI에게 판단을 모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공식 사이트가 아닌 요약 글은 참고 자료로만 두고, 최종 기준은 주최기관 공고와 신청 화면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작성본, 제출 전 검수본, 실제 제출 파일을 구분하고, 지원서의 각 문항마다 사용한 경험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표시했습니다. 문서를 만들 때도 보기 좋은 문장보다 원본 양식의 항목과 제출 규격을 지키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개인정보·서명·본인인증이 필요한 단계는 AI가 대신 처리하지 않고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분리했습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먼저 공고문과 공식 양식을 활동별 폴더에 저장하고, 지원자격·기간·제출서류·동의·서명·접수증거를 체크할 표를 만듭니다. 이후 AI에는 공고문 안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요약하게 하고, 답변 초안에는 실제 경험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본 양식에 내용을 입력한 뒤 문서의 표, 페이지 구조, 파일명, 개인정보를 사람이 다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접수 화면에서 제출하고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저장하면 같은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화면의 업로드 규격에 맞춘 업로드용 사본입니다. 원본 편집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